



새 천년, 새 경영을 위한

Daily Economic Briefs

▷ 2001년 2월 6일 ▷ DEB 20010206

- ✦ 오늘의 金融 動向
- ✦ 主要 經濟 이슈 : 4대 부문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평가
- ✦ 經濟 短信
- ✦ 오늘의 情報 資料 速報
- ✦ 主要 經濟 指標

1. 오늘의 金融 動向

□ 원/달러 환율



1260.50(-2.00)

- 전일의 큰 폭 상승에 대한 반대 매물이 출회되고 외국계 은행을 통해 3,000만 달러 가량 외국인 주식자금이 외환 시장에 유입되면서 장 초반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 그러나 장 후반 들어 역외 세력과 은행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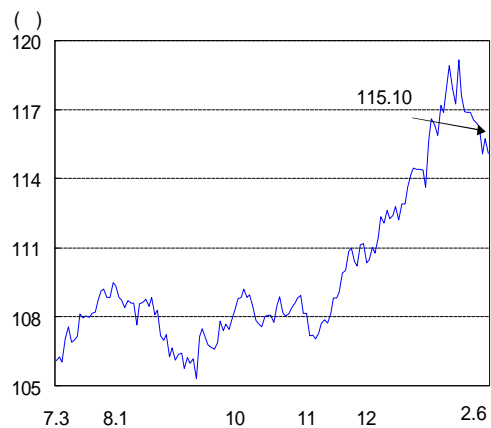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



115.10(-0.64)

- 시장은 뚜렷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거래자들의 기술적인 거래에 의존. 장 초반에는 147엔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5엔 수준에 이른 후 오후 내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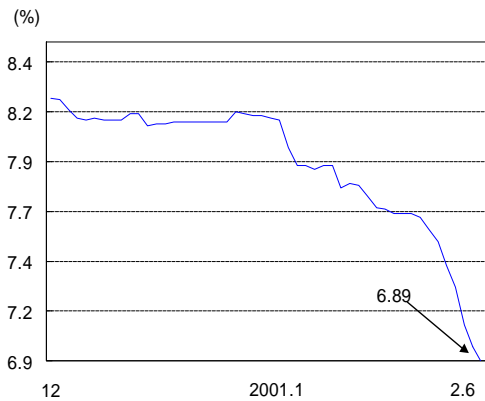


□ 회사채 수익률



6.89(-0.08)

-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5일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임. 회사채의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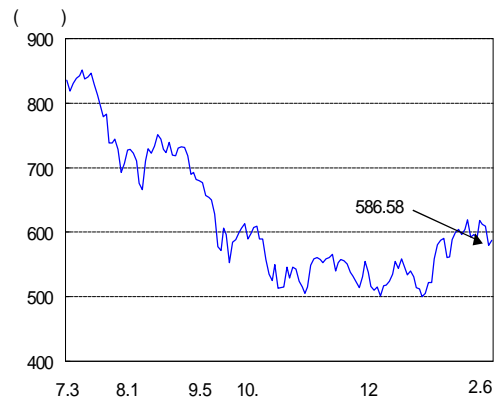


□ 종합주가지수



586.58(+7.42)

- 미국 나스닥지수의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4일만에 오름세로 마감. 외국인들이 819억 원 가량 매도했으나 국내 기관이 1,000억 원대의 매수로 지수 반등을 주도. 반도체와 철강 업종을 제외한 여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임



2. 主要 經濟 이슈

4대 부문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평가

(1) 4대 부문 구조조정 계획 주요 내용

① 기업개혁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본격 운용
 -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기업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작년말 마무리된 빅딜대상 7개 업종에 대하여 경영혁신·외자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토록 유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도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유도하여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회생 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선단식 경영관행의 폐해차단
 - 이사회·주총 기능 활성화 등 추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정착 유도 및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부당 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확대(10대→30대그룹)

② 금융개혁

-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및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 추가 공적자금 조기 투입
 -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추진 등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구축
-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 및 하나로증금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 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화·겸업화 유도
 -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은행별 정리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

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엄격히 관리

- 제 2 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부실화된 한국, 중앙, 한스 및 영남중금을 통합한 하나로중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 하에 증자·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생보, 손보는 매각 및 경영개선,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화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는 계약이전·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탁은 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고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시구조조정 추진

-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신용을 보완
-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7.6조원→9.6조원)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기업 금융 활성화를 도모
- Primary-CBO 발행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
- 연기금 주식투자 유도 지속 추진

③ 공공개혁

- 공기업 민영화

-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11개중 6개 완료) 민영화 차질 없이 추진

- 공공부문 경영혁신 마무리

- 금년도 인력감축분(12.8천명)은 부처·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행상황 점검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8개)은 금년도 관련예산 수시 배정 관리로 조기개선 유도

- 상시개혁체제 구축

- 경영혁신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기업·산하기관의 상시개혁체제 구축. 저비용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화, 경영 투명성 제고, 전자조달 활성화

- 준조세 정비 제도화

- 작년에 확정된 준조세 정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3개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
-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은 당정협의결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

- 규제개혁

- 경제5단체의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과제」를 수렴,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매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
- 외국인 투자촉진 및 외국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상시 규제개혁 창구를 가동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사업자단체의 건의수렴을 활성화

④ 노동개혁

-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무분규 사업장 등 노사협력우수사례 발굴·홍보,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운영 등 사전 분규 예방활동 강화
- 전임자 급여 문제·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문제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노동부문 제도 개선

-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 도출을 적극 주도

(2) 평가

- 이번 계획은 민간 부문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고 자금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2월 말로 일단락되고,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율적 협상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됨
-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기관의 복지부동 혹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자금 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론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나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음

-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BIS 비율을 맞추려는 상황이므로, 고위험 대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음. 이같은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화시채 신속 인수제와 같은 비상처방만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풀기 어려움
 - 따라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합병과 그 자회사가 될 제2 금융권 금융기관들의 합병 가이드라인과 향후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해당 금융기관들도 보수적 운용 행태를 벗어나게 됨
- 시장 원리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함**
-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메카니즘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 즉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 체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회생 가능 기업과 정리 대상 기업을 판별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우 부실 기업 판정에 있어 정부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임
 -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대상 기업을 선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 ▲ 우선 금융기관(혹은 신용 평가 기관)의 기업 신용 평가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 대상 기업의 선정이나 기준 혹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압력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
 - ▲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 기업 자율의 효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약하고, 생산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도산관련법제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노동 관행이나 파산법,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선진적 제도와 관행을 현실에 맞게 도입, 정착시키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퇴직금 누진제 등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공공부문 개혁 요소들을 연내 확실히 조정해야 함**
-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시스템 등 전반적인 공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3. 經濟 短信

채권단,
한국부동산투자신탁
추가 지원 난색 표명

-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탁)의 채권단은 한부신탁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지급보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함
-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미 부도가 난 회사에 추가 자금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 또한 채권단은 담보채권에 대해 모두 출자전환하는 안을 마련했었으나, 삼성중공업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부도를 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장별로 분할, 수익성이 없는 곳은 매각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
- 채권단은 오는 8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한부신탁 처리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통신위, 4개
이동통신사 부당
요금 환불 명령

-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한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보험료 및 해지 유보금과 과/오납요금 등을 환불토록 명령함
- 통신위원회는 또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신문공표 명령과 함께 총 1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또한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는 SK텔레콤이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이 조사대상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은 조사대상 138명중 91명(65.9%)인 것으로 조사됨

김대통령, 부실 기업
끝까지 책임 규명

- 김 대통령은 부실 기업과 회계 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 대통령은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힘

4. 오늘의 情報 資料 速報

- ▶ CNN : 美國 경기 둔화로 아시아 동반 침체 가능성
 - 지난달 말 美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지역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
 -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하이테크 분야 등의 지출감소로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물론 이들 지역 수출의존도가 30%인 홍콩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

- ▶ ADB(세계은행) : 亞 빈곤은 정치적 불안 요인
 - 5일, 아시아의 빈곤 증가가 이 지역내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 총재가 동시에 경고
 - 치노 다다오 ADB 총재는 이날 개막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 척결을 위한 회의에서 최근 수 십 년간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살고있다면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점증해 정치적 단결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
 - 제임스 올펜슨 세계은행 총재도 이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을 통해 돈만으로 빈곤을 줄일 수 없으며, 정치·경제적 프로그램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기반시설 정비 같은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

5. 主要 經濟 指標(資料 更新)

▶ 國內總生產 및 1人當 GNI

		1998	1999					20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국내총생산(경상)	조 원	444.4	-					483.8	-		
	억 달러	3,177	-					4,067	-		
1인당 GNI		달러	-					8,581	-		
국민소득계정	GDP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	-6.7	5.4	10.8	12.8	13.0	10.7	12.8	9.6	9.2
	최종소비		-9.8	5.3	8.4	10.1	10.1	8.5	9.6	7.7	4.9
	설비투자		-38.8	13.0	37.3	48.5	55.1	38.0	63.6	41.3	32.0
	건설투자		-10.1	-13.6	-8.5	-9.8	-10.2	-10.3	-7.0	-4.7	-3.5

▶ 産業活動

		1998	1999					2000				
			Q1	Q2	Q3	Q4	연간	Q1	Q2	Q3	Q4	연간
생산	전년 동기 대비 (%)	-7.3	12.5	22.7	28.5	28.9	24.2	23.4	18.3	19.6	7.4	16.6
도소매판매액		-12.7	6.0	10.8	17.6	15.7	13.0	14.4	12.4	7.6	3.5	9.2
국내기계수주		-30.5	16.9	38.5	22.6	13.8	22.6	18.2	8.3	17.1	20.7	15.9
국내건설수주		-42.5	-45.3	27.5	13.4	18.0	13.4	75.9	20.4	8.5	-6.9	17.3
평균 가동률(%)		68.1	71.3	76.8	79.6	79.8	76.5	79.6	79.3	80.4	75.6	78.7
어음부도율(전국%)		0.38	0.11	0.12	0.70	0.35	0.33	0.23	0.17	0.28	0.37	0.26
실업률(%)		6.8	8.4	6.6	5.6	4.6	6.3	5.1	3.8	3.6	3.7	4.1

▶ 對外 去來

		1998	1999				2000			
			연간	1~10	1/4	2/4	3/4	10	11	
수 출	억 달러	1,323	1,437	891	393	434	445	153.1	150.2	
		(-2.8)	(8.6)	(2.6)	(30.0)	(21.5)	(26.9)	(13.8)	(5.8)	
수 입	(증가율)	933	1,198	740	388	398	404	141.0	141.7	
		(-35.5)	(28.4)	(20.4)	(51.8)	(38.3)	(35.6)	(24.1)	(20.8)	
경상수지	억 달러	404	245	188	15	26	36	10.5	10.5	

▶ 物價

		2000												2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소비자물가	전년동기 대비(%)	1.6	1.4	1.6	1.0	1.1	2.2	2.9	2.7	3.9	2.8	2.6	2.3	4.2
생산자물가		2.0	2.1	2.4	1.9	1.2	2.6	2.9	2.5	2.5	1.8	1.3	2.0	2.3
생활물가		3.4	3.2	3.1	1.8	2.0	3.7	4.8	4.1	5.9	3.9	3.5	3.6	5.0
WTI 유가(\$/bbl, 기말)		26.5	27.5	28.2	25.7	30.4	32.5	27.4	33.1	30.8	32.7	33.8	26.8	28.6